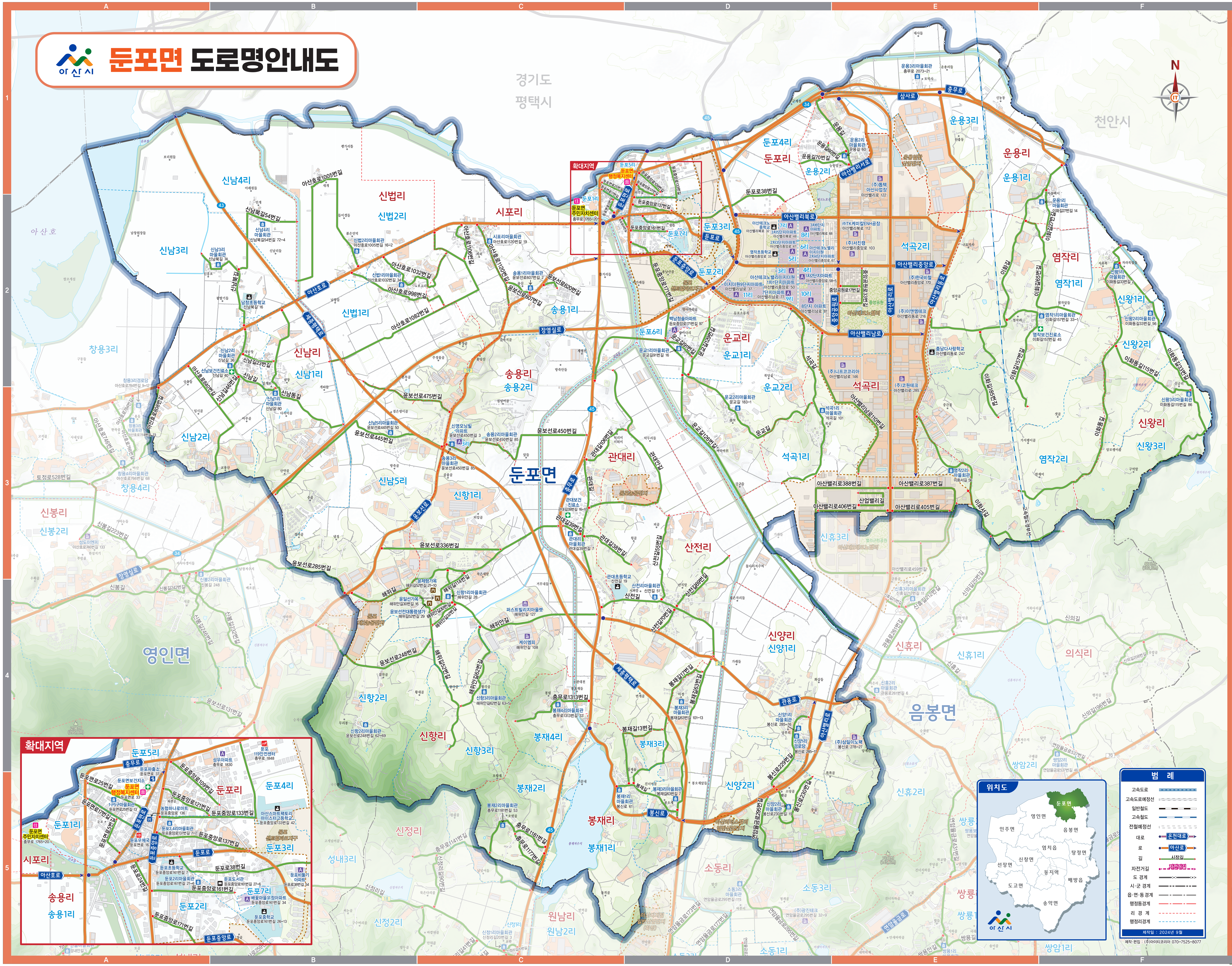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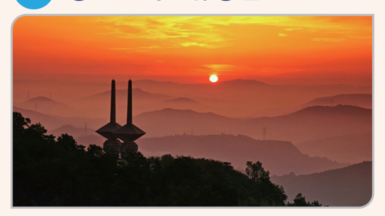


아산 관광 10선

01 영인산자연휴양림



> 물소리, 새소리, 나무향기 가득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길이 완만하여 삼림욕에 적합하며 인근에 높은 산이 없어 산정상에 오르면 서해바다와 아산 시가지, 아산만방조제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02 공세리성당

> 한폭의 수채화같은 120년 역사의 순교성지성당

1894년 한국 천주교회에서 아홉 번째이자 대전교구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공세리 성지·성당은 12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순교성지·성당답게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제144호로 보호되고 있다. 공세리성당은 이 지역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병인박해 때 목숨을 바친 32명의 순교자들을 모시고 있다.

03 온양민속박물관

> 조상의 얼이 담긴 온양민속박물관

온양민속박물관은 유, 무형의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하여 학술연구와 후세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세계에 한국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1978년 구정 김원대 선생(1921~2000)이 설립하였다.

04 환경과학공원

> 직접보고 만지며 체험할수 있는 생태체험 자연학습장

환경과학공원은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장영실 과학관, 아산생태곤충원, 생활자원처리장, 아산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까지 다양한 시설을 갖춘 휴식처이자 현장학습터이다.

05 세계꽃식물원

> 세계 각국의 아름다운 꽃을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의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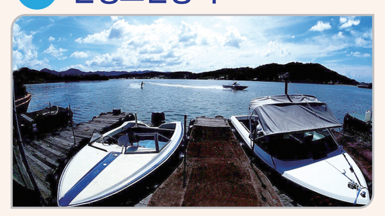
연중 3,000여 종의 원예종 관상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온실 식물원으로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아름답다.

06 은행나무길

>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아름드리 은행나무 가로수 길

아산 은행나무길은 아산시 염치읍 곡교천을 따라 조성된 길이다. 아산시 충무교에서 현충사 입구까지 총 길이 2.1km 구간에 조성된 은행나무 가로수는 1966년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1973년 10여 년생의 은행나무를 심은 것이 지금의 은행나무길이 되었다.

07 신정호관광지



> 수려한 자연경관의 사계절 휴양지

신정호는 담수면적이 92ha이며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1926년에 만들어진 인공호수이다. 자연경관이 수려해 사계절 휴양지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곳으로 신정호수 외곽으로 야외음악당, 잔디광장, 음악분수공원, 생활체육공원 및 생태수상고원 등 친환경적인 테마별 공원이 구성되어 있어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준다.

08 아산외암마을

> 과거의 흔적이 살아있는 민속박물관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밑에 위치하고 있는 아산 외암마을에는 약 5백년 전에 이 마을에 정착한 예안 이씨 일가가 지금까지 주류를 이루어 살고 있다. 이끼 낀 나지막한 돌 담장이 인상적이며, 집집이 쌓은 담장 길이를 합하면 모두 5,300미터나 된다.

09 이충무공유허(현충사)

> 이순신장군의 얼을 기리는 사당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널리 일리고 이를 되새기기 위해 충무공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충무공이 성장하여 무과급제할 때까지 살던 곳으로, 순국한지 108년이 지난 숙종 32년(1706년) 충무공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웠고 1707년 숙종이 친히 현충사란 휘호를 내렸다.

10 온양온천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1300년 역사의 온천

아산시 온천동에 위치한 온양온천은 현존하는 문헌기록상 그 출전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 백제, 통일 신라시대를 거쳐 그 역사가 근 1300여년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고려시대에 온수군(溫水郡)이라 불리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온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은 600여년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도시 아산!
아산시는 소중한 추억과 여행의 참맛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